강단시론

강 희 원
(법대교수 법학)

교육개혁이 곧 사법개혁

근래의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정치적 구호로 사용된 말들을 언어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 보면, 이들 언어들이 그 본래의 언어적 이미지와는 다른 맥락으로 오용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상언어생활에서 심한 심리적 갈등을 야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년대에는 "유신(維新)"이 그러하였고, 80년대초반에 "사회정의(社會正義)"가 그러하였으며, 80년대 후반에 "국제화(國際化)"가 그러하였다. 그래서 유신과 사회정의라는 말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고, 국제화를 사대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듯하다. 90년대에 들어와 우리는 "개혁(改革)"과 "세계화(世界化)"라는 새로운 정치적 구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이들 용어에 대하여 또다시 언어병리적 심리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진다.

"개혁"이라는 말이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희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약진케 하는 강력한 구심력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바람나서 개혁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개혁이 현실적 욕구와는 점점 멀어져가고 오히려 사회적 욕구를 왜곡시키고 억압하는 이데올로적 구호로 변해가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좌절로서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개혁을 단순히 제도의 "법령"내지 "바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구호를 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바가 실현되기를 희구하였다. 개혁은 "양적 변경"이 아니라 "질적 변화"이며, 그것은 "올바른 변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게다가 세계화가 개혁의 부실화(不實化)를 정당화 하는 구실로 등장하자, 개혁의 실상(實相)은 더더욱 왜곡되고 세계화라는 외침은 공허하게 귓전에 메아리쳐 울릴 뿐이다. 벌써 곳곳에서 개혁과 세계화에 대한 언어심리적 착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단계에서 개혁은 구두선(口頭禪)이며, 세계화는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상품화(商品化) 내지 시장화(市場化)란 말인가?

사법시험과 법대교육의 개혁방향을 생각해 보자. 법조계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개혁을 토착화하고 세계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먼저이는 개혁의 칼로 사법시험과 법과대학교육제도를 내려치려고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몇일 전에 공표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신문,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는 일제히 정부의 개혁적 작전수행을 돕고 반개혁적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원격지원시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들은 연일 악덕변호사를 고발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무턱한 일반대중의 피해의식(?)을 자극하여 제도변경을 위한 당위성과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견해를 한 마디씩 덧붙인다. 사법개혁의 도화선에는 이미 불이 당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든 개혁자가 아니면 반개혁자로 전락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다.

둘째, 법학교육을 현실화하고 실질화하는 최선의 방안이 미국식 Law School이며, 법률가의 교육년한을 연장하는 것이 상책인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법과대학이 진정으로 사법시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가? 왜 법과대학이 살아야 하는가? 사법시험개혁이 법과대학을 살리기 위한 처방인가? 법과대학을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면 진정으로 법학교육이 살아나는가? 그렇지 않다.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이 공동화(空洞化)하는 데에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법과대학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세째, 변호사의 수를 어느 정도까지 늘이는 것은 현재 절실히 요청되고 있지만, 과다한 증원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변호사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및 그 직업적 속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우리 법문화와 법감정이 구미제국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네째, 국가는 전문형역, 특히 국제거래나 국제적 통상과 관련하여 외국법에 정통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개혁과 법과대학 및 사법시험제도개혁을 항상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는 영장으로 하여 교육 그 자체를 망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서 미국식 사법대학원(Law School)을 만들기만 하면, 유능하고 훌륭한 전문법률가와 법학자를 얼마든지 잘 길러낼 수 있다고 간단히 생각하는것은 아마 커다란 착각일 것이다.

"능동적 변화의 주역되어 주길"

총장치사

공 영 일
(총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 그리고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제43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면서 맘과 노력으로 영광의 학위를 얻게된 졸업생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국가와 사회, 나아가서는 세계의 인류를 위해 공헌할 인재들을 길러내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이 자리에선 졸업생 여러분이 입학하면서 가졌던 희망과 포부를 어느정도 성취했는가는 개개인이 재학기간중 노력한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졸업후에는 여러분이 속하게 될 다양한 직업과 삶 속에서 자신의 혼신을 다하겠지만 지금까지 대학에서 닦은 기량과 지식이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개혁과 개방, 그리고 지역간 국경의 해체로 하나가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제논리에 의한 집단화로 오히려 커다란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졸업생 여러분이 사를계 출발하게 되는 세상은 험난한 파고에 휩싸인 돛단배와도 같은 격랑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의 배움터에서 터득한 정신과 기상으로 각자의 일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새시대의 도전과 시련에 맞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찍이 우리 대학은 잘살기 운동을 비롯하여 경희가족운동, 자연보호운동, 밝은사회운동, 세계평화운동 그리고 최근의 도덕과 인간성 회복 운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실천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선도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의 단순히 지식의 전수나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진데,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를 스스로 체득케 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인간존중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실천해 온 우리 대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졸업생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경희인에게 거는 시대적 소명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의 정치, 경제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대학에도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교육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라 제도와 시설, 교육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학종합평가제도에 따라 국내의 각 대학들은 급박하면서도 새로운 경쟁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변화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일찌기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여 꾸준히 제반 여건을 정비해 왔기 때문에 커다란 충격 없이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우리에게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의 주역이 되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와 같은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태세를 예비했습니다. 대학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후배들은 물론, 교직원 등 전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경희의 이름을 더욱 빛낼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부디 졸업생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교가 자랑스런 모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길 당부드립니다.

"개척자적 봉사정신을 갖도록"

학원장치사

조 영 식
(학원장)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모든 경희가족과 함께 참마음으로 축하하며 아울러 오늘의 기쁨이 있기까지 모든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주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참다운 진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정을 다해 가르쳐 주신 교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졸업생여러분들이 첫발을 내딛는 1995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이 일제와 사슬에서 해방된지 50년, 그리고 전쟁없는 인류세계를 바라보며 UN이 창립된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혜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화를 바라보며 우리의 새로운 위상을 세우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나는 십수년전, 보편적 민주주의를 향한 제3 민주혁명을 얘기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채장보단하면서 통합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에로 지양될 것이라고 누누히 역설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세계는 정치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변신적 변화의 와중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배타적 국가주의, 이념적 계급주의, 근국적 제국주의 시대는 가고 인류의 공존, 공영을 바라보며 동서의 문화가 하나로 승화·통합되는 보편적 민주사회 즉 종합문명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지구촌, 인류가족, 세계공동체 사회를 살아가야할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역사적 소망이 함께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동방의 예의지국 선인지국이라 일컬어진 우리나라에서 실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각종 폐륜·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보며 우리는 과거 우리선배 경희인들의 개척자적 봉사정신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초토목리의 가난에 허덕일 때 잘살기운동을 전개하여 새마을 운동의 초석을 놓아 주었고 높은 경제발전에서 오는 인간소외와 인간성의 상실을 보고 밝은사회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건전한 인류사회의 기풍을 진작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동서의 극단적인 냉전체제 속에서 온 인류가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에 전율할때 UN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공포케 함으로써 인류의 신화해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다시 물질문명의 한계점에서 자아를 상실하고 도덕이 무너진 가운데 인간부재의 사회가 되어감을 깊이 우려하며 도덕과 인간성 회복운동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비록 몸은 정든 캠퍼스를 떠나지만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경희인으로서 이 거대한 역사적운동에 기꺼이 동참하여 세계에 이성의 등불을 밝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 할 소명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전 경희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학사보고

"올해로 대학주보 창간 40주년"

▲1949.2.15 배영대학관을 모체로 제단법인 성재학원 설립
▲1949.5.12 신흥초급대학(2년제)가인가로 설립(영어과, 중국어과, 제육과)
▲1951.5.18 조영식박사 제단인수, 이사장으로 취임
▲1951.2.3 정규대학으로 신흥초급대학 재설립인가(영어과, 중국어과, 법정과, 제육과)
▲1952.12.9 신흥대학(4년제) 승격 인가
▲1954.2.9 신흥대학 대학원 설치 인가
▲1955.5.12 신흥대학보 창간
▲1957.7.24 교시탑 준공
▲1957.10.3 대학의 소리 방송국(V.O.U) 설치
▲1958.4.8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설치 인가
▲1958.5.15 The University Life 창간
▲1959.7.1 잘살기 계몽운동 개시
▲1960.3.1 경희대학교로 교명 변경
▲1962.10.15 대운동장스타디움 준공
▲1963.2.26 경희초급대학 설립 인가
▲1963.12.16 음악대학 신설
▲1965.1.9 사범대학 신설
▲1966.3.14 산업경제대학원 설립 인가
▲1967.11.24 산업대학 신설
▲1969.2.20 공과대학 신설
▲1970.2.16 경희간호학교를 경희간호전문학교로 개칭 인가
▲1971.10.5 경희의료원 개원
▲1972.11.8 세계최초 무약물 침술마취수술 성공
▲1973.3.1 치과대학 승격, 경희호텔경영전문학교 설립 인가, 대학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원의 생활화 운동 전개
▲1973.12.14 동서의학 암연구센터 발족
▲1974.1.20 한국최초 한의학 박사과정 신설
▲1974.12.11 행정대학원 설립인가
▲1976.3.30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개원
▲1976.7.16 세계대학총장 이사회 서울서 개최
▲1976.12.31 한의과대 승격
▲1978.6.13 동양최초 자연사박물관 개관
▲1978.10.7 2부대학 신설인가(정원 2백명)
▲1979.1.1 수원캠퍼스 신설인가
▲1980.3.8 수원캠퍼스에서 첫 입학식 거행
▲1981.5.7 국제교류부 설치
▲1982.10.21 제5대 심태식 총장 취임
▲1983.10.29 평화복지학원 설립 인가
▲1984.9.28 수원캠퍼스 기숙사 애지원 준공
▲1985.1.10 제6대 박양원 총장 취임
▲1987.8.1 수원 캠퍼스 부총장 이영재교수 취임
▲1987.11.9 산업정보대학원 신설 인가
▲1988.1.18 조영식이사장 제7대 총장으로 복귀 취임
▲1989.5.18 경희40주년 기념식 거행
▲1990.11.6 수원캠퍼스 신문방송국개관, 대학주보 편집실 신문방송국으로 이전
▲1992.2.22 치과대학 개관
▲1992.10.16 수원캠퍼스 천문대 개관
▲1994.2.23제42회졸업식 거행

외국어,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외국어에 끌려 다니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그 외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합니까?
국제화시대, 무역전쟁시대의 외국어는 전쟁의 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외국어라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I CAN DO IT"
25년 동안의 현장교육을 통해 한국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파고다의 혁신적인 외국어교육 프로그램과 만나십시오
세계 아홉나라에서 선발된 막강 엘리트 군단이 귀하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서게 할 것입니다.

영 어
-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 12명 정원, 1일 1시간 1년과정/전원 미국인교수
- 기초 영어회화: SIDE BY SIDE/FIFTY-FIFTY, A CONVERSATION/LADO/LINE BY LINE
- 영어청취·어휘/유창·전화·취업: AFKN/TOEFL L/C./TIME, TOEFL/GRE/GMAT/TO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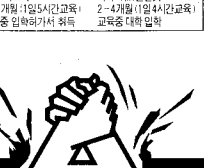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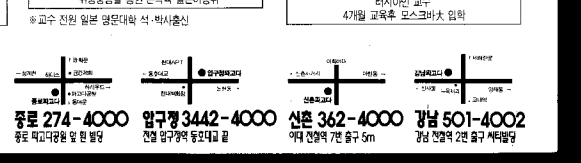
※문법, 독해, 작문, 발음교정, 청취등 국내 최고 교수진

최신 영어특강 프로그램
- INTENSIVE S.L.E. COURSE: 1일 2시간 주5회/각반 12명 소수정예, 과학적교수법/최신교재/교수전원 미국인
- INTENSIVE ENGLISH COURSE: 영어만 사용, 석사학위 미국인 교수들에 의한 영어문법, 작문, 회화의 종합적 능력 완성을 위한 주5일 교육 (1일 5시간교육) ※미국대학공인 프로그램
- 미국 WISCONSIN 대학반: 한국 파고다 2-4개월 (1일5시간교육) 교육중 입학허가서 취득 → 미국 위스콘신大 2-4개월(1일4시간교육) 교육중 대학 입학

일 본 어
-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 동경 일본어 독해/일본어작문
- 스크린 일어회화및 청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 일본인 회화(초급 Ⅰ·Ⅱ·Ⅲ)
- NHK 일본어: 위성방송을 통한 본격적 일본어청취

※교수 전원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출신

독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 독어강좌
- 프랑스인 불어강좌
- 중국인 중국어강좌
- 스페인어강좌
- 러시아 인 강좌 및 모스크비大: 1일 3시간/1주 5일, 러시아인 교수, 4개월 교육후 모스크바大 입학

세계 4번째로 남극점 도보탐험에 성공한 한국 남극탐험대
사진 좌앙이 고인경 탐험대장(본학원장), 홍성택 대원(본학원)

현단 하이테크 시대와 변화를 맞이하는 교수진이 함께하는 -
파고다외국어학원